



인성 기반 역량 함양 교육으로서 교양체육 배구수업 참여 경험의 질적 분석

오승현¹

《 요 약 》

본 연구는 교양체육 수업에 참여한 학생의 인성과 역량 발달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A대학의 교양체육 배구 수업에 참여한 남녀 학생 45명의 과제 제출물을 분석하고, 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교양체육 참여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용기와 책임감, 대인적 차원에서 존중, 신뢰, 배려심, 사회적 차원에서 협동과 공동체 정신이 발달하였다. 둘째, 교양체육 참여자는 기초 수행 역량으로서 자기관리 역량, 심리·자기조절 역량으로서 자기효능감, 동기, 몰입의 역량, 문제해결 역량으로서 협력, 리더십, 성찰력을 함양하였다. 셋째, 교양체육에서 인성과 역량은 긍정적 관계를 맺는다. 책임은 자기관리 역량, 공감과 배려는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포용적 공동체성은 리더십과 집단적 성찰 역량과 관계를 형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교양체육이 인성과 역량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고, 인성과 역량의 학습이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교양체육, 자유교양교육, 인성, 역량, 인성 기반 역량 함양

1. 용인서천고등학교 교사, oaa1@hanmail.net

I. 서론

대학 교양교육의 가치와 정체성에 관한 논쟁이 대학 개혁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것은 주로 교양교육의 ‘쓸모’에 관한 것인데, 교양체육 역시 교양교육으로서 그 쓸모가 무엇인지에 관한 의문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교양교육이 그렇듯이, 교양체육 역시 과목 수와 다양성이 상당 부분 축소되었고, 교양체육의 여건과 환경은 열악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김재우, 2018; 장민우, 정현우, 2025). 실용 학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취업 중심의 학문에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학의 현실에서 올바르게 품격 있는 인성과 마음을 계발한다는 자유교육의 이상을 근거로 삼는 교양교육, 교양체육의 위상이 추락을 거듭한 것이다(김성우, 최종덕, 2009; 윤유진, 이연주, 2018; Ward, 2016).

이처럼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 교양체육이 자리를 내준 곳에는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을 강조하며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역량 중심 교양교육’이 대체하고 있다(김민정, 2019; 백승수, 2020; 손승남 외, 2021). 특히, 대학은 취업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역량 기반 교양교육을 교양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여 커리큘럼의 디자인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양과목은 전공과목에 비해 중요성이 낮은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다(김은영, 이재성, 2017; 양영근, 정원희, 2014; 윤유진, 이연주, 2018). 이처럼 자유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 즉 보편적인 인성과 자유 정신의 함양을 교육 이념으로 하는 교양교육은 사회적, 직업적 실천 현장에서 실제 요구되는 능력 위주의 기술적 역량을 함양하는 역량교육의 방향과 사뭇 배치되는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자유교양교육과 역량 중심 교양교육이 하릴없이 접점을 찾기 힘든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하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자유교양교육과 역량 중심 교양교육이 노정하는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둘 사이의 대립은 공연한 관념적 선긋기라는 의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인 마음을 계발하여 전인적 교양인을 양성한다는 자유교양교육의 이념은 실제적인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그 이념적 설득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반면 목표지향적이며 현실 적용 가능한 능력 계발 중심의 교육을 표방하는 역량 중심 교양교육은 특유의 기능적, 도구적인 방식이 노정하는 교육의 한계로 인해 인성의 도야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이념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적 차원의 대립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교육이 결코 배타적이지만은 않고 상보적 관계를 형성하는 지점 또한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숙정, 이수정, 2012;

Gervais, 2016). 이는 인문적 교양의 함양은 인간을 전인적 성장을 이끄는 근간이고, 나아가 행위 능력의 바탕이 됨으로써 인간의 실천을 도덕적으로 정위시키면서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문적 가치와 태도의 발현은 광대한 삶의 영역에서 공허한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역량으로 외화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시기 사회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역량’ 또한 실천 과정에서 인문적 배경과 도덕적 맥락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요청받고 있고, 단지 삶의 성공이라는 맹목적 목표를 쫓는 도구가 아니라 풍부한 윤리적 숙고 속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개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인성과 역량이 결코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화적이며, 인성이 기반이 된 역량의 실천이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교양체육이 인성과 역량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이 되는 점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 일단을 드러내고자 한다. 교양교육의 위기를 역량 중심 교양교육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인성 기반 역량 함양 교양교육(체육)’이 결코 상호모순적 개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합리적으로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인성과 역량이 상호 보완적, 양립 가능한 개념이라는 논제는 이론적 차원에서 보다 철저히 분석되고 규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임에는 분명하나, 본 연구는 개념적, 이론적 논의의 실제적 맥락을 도외시킬 수 없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경험적인 차원에서 인성과 역량이 긴장 관계가 아닌 상보 관계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교양체육에서 인성과 역량을 다룬 선행 연구를 분석하기 전, 본 논문에서 이해하는 인성과 역량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본다. 인성이란 인간의 인지, 감정, 행위의 세 차원에서 윤리적,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위를 이끄는 긍정적인 성품이자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정준, 2011; 이기대, 권준우, 박정준, 2023; Berkowitz & Bier, 2004; Peterson & Seligman, 2003; Pozo, Grao-Cruces, Pérez-Ordás, 2018).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성품으로서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인지, 의지, 감정 등의 총체적 성향을 가리킨다. 이와 달리, 역량은 한 개인이 특정한 업무나 맥락에서 동원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이 통합적으로 발휘되어 성과를 달성하도록 이끄는 능력이다(Bartram, 2005; Gervais, 2016; OECD, 2005; Van der Heijde & Van der Heijden, 2006). 즉, 역량이란 특정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완수할 수 있는 인간이 지닌 능력이나 기량인 것이다. 인성이 가치 기반이라면, 역량은 성과 기반이다. 인성이 도덕성, 공감력, 배려심 등 가치 지향적 태세와 행위의 잠재력이라면, 역량은 지식, 기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은 성과 기반의 지표로 환원 가능한 능력의 총체이다. 본 연구는 인성과 역량의

개념에 관한 이와 같은 방식의 규정을 통해 주제에 접근한다.

본 연구의 주제 및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교양체육에 관한 선행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교양교육 및 교양체육을 사회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이는 교양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핵심 역량을 계발하는 교육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연구와, 다른 한편 신자유주의 시대에 대학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자유교양교육의 이념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고 신자유주의적 통치성에 따라 자기를 계발하는 주체를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김민정, 2019; 백승수, 2020; 손승남 외, 2021; 손종현, 2022; 신성진, 원영인, 2022; 유정애, 권민정, 2013; 윤대현, 이주욱, 2014). 관련 연구들은 핵심 역량 계발 교육으로서의 교양교육, 교양체육에 관해 서로 대척점에서 상반된 평가를 하며 논리를 전개한다. 둘째, 자유교양교육의 이념을 견지하는 인성교육으로서의 교양체육에 관한 연구이다. 해당 연구는 교양체육이 인성의 계발, 촉진 나아가 인성의 총체적 함양과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유용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은희, 류태호, 2016; 양은석, 2008; 오승현, 2020, 2022).¹⁾ 연구는 교양체육의 위기를 사회적 위기 속에서 진단하고 대학의 인성교육의 역할을 교양체육이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셋째, 역량 함양 교육으로서의 교양체육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들은 자기효능감, 몰입도, 과제 지속성, 동기, 문제해결력 등의 심리적인 역량 요인을 제시하면서 교양체육이 역량 개발과 실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송기현, 김승용, 2018; 안병욱, 조은영, 2015; 조건상, 2015). 넷째, 교양체육의 정책 연구는 교양체육의 위상을 진단하면서 교양체육이 대학교육의 본질적 요구와 역량 함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연구들은 교양체육이 대학의 교양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신민혜, 조남기, 2016; 장민우, 정현우, 2025; 정태린, 박성현, 2022; 조성원, 원영신, 이민규, 2013).

이처럼 선행 연구가 교양체육의 대학교육 내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분석하고 있으나, 인성과 역량의 발달을 함께 고려하여 교양체육의 가치를 분석하는 접근은 부족하다. 교양체육에 관한 사회학적 분석과 인성교육으로서의 교양체육 연구는 교양체육의 도덕성과 정의적 특성의 함양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학습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함양되는 역량의 요인과 양상을 포착하지 못했고, 역량 기반 교양체육 연구는 심리적 역량의 변화를 관찰하면서도 관련 요인들이 윤리적, 사회적인 가치의 학습과 유리될 수 없다는 부분에 주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정책적 접근 역시

1) 오승현(2020, 2022)의 연구는 질적 연구를 통해 교양체육의 인성 발달에 관한 효과를 검증하면서 수업 과정에서 함양하는 인성, 전인적 발달, 삶에 관한 성찰성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교양체육 수업에서 역량 요소의 형성과 발달 그리고 인성 발달과의 관계가 인성 덕목의 함양 못지않게 중요함에도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약점을 노출한다.

인성과 역량 교육으로서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

인성과 역량은 배타적, 양자택일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는다. 둘은 상보적으로 통합될 가능성을 갖는다. 도덕적 가치와 태도로서의 인성을 높이는 데에도, 그리고 문제해결력과 자기효능감 등의 역량을 동시에 높이는 측면에서도 체육수업, 교양체육이 효과적인 점을 밝히는 연구들은 인성과 역량이 통합적 접근에 의해 양립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최미영, 정명희, 2016; Li et al., 2025; Pozo et al., 2018; Richards et al., 2019; Sánchez-Miguel et al., 2025). 도덕적 가치의 함양이 실천적인 역량을 촉진하고, 실천적인 역량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윤리적 가치에 대한 감수성과 수용성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교양체육 배구 수업에서 인성과 역량의 동시적 발달한 학생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다. 연구는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첫째, ‘교양체육 참여 과정에서 발달하는 인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교양체육 수업에서 인성의 변화가 개인적 차원에서 대인적,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관찰, 분석한다. 둘째, ‘교양체육 수업에서 개발되는 실천적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통해 교양체육에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역량의 요소를 찾아 분석한다. 셋째, ‘교양체육에서 인성 형성과 역량 발달이 연결되는 현상적 차원과 핵심적 맥락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인성-역량이 맺는 상호 관계를 경험적 차원에서 찾는다. 논의에서 교양체육에서 인성과 역량 발달의 의미, 인성과 역량의 동시적 발달의 의미, 통합적 관점의 교수·학습 방법론의 필요성 등을 다룬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수업 소개

가.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는 A대의 2025년 1학기 교양체육 배구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A대는 수도권 소재의 대학이며 비교적 다양한 교양체육 강의를 개설되어 있고,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곳이다. 교양 배구는 A, B 2개의 강의를 개설되었고, 한 강의당 정원은 30명이다. 강의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 일정, 부상, 질병, 취업 준비 등의 사유로 수강 취소를 하여 A 강좌는 22명, B강의는 23명이 최종 수강하였다. 학생들의 운동 수준은 기본 기능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그룹을 상급으로 가정했을 때 상중하의 비율은 대략 30:40:30 정도이다. 학생들은

주로 중고등학교의 체육 수업에서 배구를 접했고, 상급 수준의 학생일수록 초등학교에서부터의 경험이 있었고, 일부는 학교스포츠클럽이나 방과후수업에서 배구를 학습한 경우도 있었다. 남녀의 비율은 강의별로 각각 7:3, 6:4이며, 남학생의 기능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만, 일부 여학생의 경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동아리 활동을 통해 높은 실력을 갖춘 학생도 있다. 모든 학생의 연구 참여 방법은 배구 경기 분석을 주로 하는 중간 과제, 수업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로서의 소감문을 제출하는 기말 과제로 이루어졌고, 특히 깊이 있는 내용의 정보를 얻기 위해 심층 면담자를 별도로 선정하여 연구에 참여시켰다. 심층 면담 참여자는 질적연구의 참가자 표집 방법의 하나인 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Creswell, 2007). 수강생의 성별, 학년, 기능 수준, 배구에 대한 관심, 스포츠 동아리 참여 경험, 수업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연구자는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교양체육의 실태에 대한 소개를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을 안내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표 1〉 주요 연구 참여자 특성

학생	강의	성별	학번	특성
A	001	남	2022	- 중급 수준의 배구 기술이나, 뛰어난 운동 학습 능력을 가짐.
B	001	남	2024	- 교내 농구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뛰어난 운동 기능을 보이고 배구 기술 학습에 매우 적극적임.
C	001	남	2024	- 우수한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으며, 배구와 스포츠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숙련된 서브 기술을 발휘함.
D	002	여	2021	- 발달된 운동 기능을 보이며, 수행 능력에서 가장 큰 향상을 나타냈고, 배구 동아리에 깊은 관심을 보임.
E	002	남	2018	- 취업을 준비하는 고학년 학생으로, 배구에 관심이 높음.
F	002	여	2023	- 기능 수준은 낮지만, 참여 동기가 높고 성실하게 수행함.

나. 연구자

연구자는 교양체육 강사로서 11년의 실기 강의 경력을 갖고 있다. 교양체육의 긍정적 가치와 대학교육 내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연구자는 강의에서 학생들의 강의 참여와 흥미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수업마다 기초 기능의 일체형 학습을 강조하고 연습 후 게임을 하는 방식의 강의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기능 향상을 위해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발달이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르치는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다. 강의 소개

A대의 교양 배구 학점은 1학점에 실기 2시간이며, 성적은 A~F 사이에 점수대별 학점 부여가 가능한 비율을 정하여 산출하고 있다. 또한, 학기 초반에 학생 스스로 성적 부여 방식을 pass/fail로 선택할 수 있다. 학생들의 요구가 있지만 아직 수준별 강좌는 개설하지 않고 있다. 15주차의 배구 강의는 배구의 기본 기능과 경기 기능을 매주 익힐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1주차의 수업 소개에서 배구 학습과 경기가 참가자들에게 갖는 철학적, 교육적 의미를 설명하고, 성찰 일지에 수업 참여와 자기 성장의 부분을 연결하여 이를 어떻게 기록할지 안내하였다. 특히, 배구 플레이의 특성이 갖는 독특성과 장점을 소개하고 이를 한 학기 동안 학습의 전 과정에서 곱씹으며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배구 기능 학습의 어려운 점을 강조하면서 2시간의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은 최소화하였다. 단위 시간에 모든 기능을 반드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여 연습 종류, 시간, 강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가령, 배구의 5대 기본 기능인 서브, 언더핸드 패스, 오버핸드 패스, 스파이크, 블로킹, 서브 기능을 일체형으로 구성하여 모든 주차의 수업에서 연습하고, 이어서 게임 시간을 반드시 할애하여 학생들이 경기를 통해 기본 및 경기 기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단위에서 모든 기본 기능의 성공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간 이후부터는 변형 게임을 통해 협력 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변형 게임에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였다. 인지적 영역의 발달을 위해 배구 특성, 규칙 및 규정, 공격과 수비의 전략·전술을 기본적으로 안내, 강조하고, 수업 중후반부터는 전략과 전술을 학생들 스스로 구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배구 지식 학습을 위해 배구 기본 기능 연습 영상, 시합 및 릴리 영상, 애니메이션, 배구 잡지, 체력 운동, 국내외의 최신 배구 훈련법 등을 소개하였다. 주요 기능 연습으로 1:1 연습, 3:3 간이 패스 연습, 2단 토스 연습, 4인 1조 2단 토스 연습, 3인 수비, 스파이크 스텝 연습, 윈스텝 스파이크, 릴레이 서브 캐치, 어택 커버, 개인 수비, 네트 플레이, 릴레이 블로킹 연습, 스파이크 및 블로킹 동시 연습, 연타 게임, 협력 플레이, 수비 전술 연습 등을 실시하였다. 정의적 태도의 발달을 위해 세레모니 아이디어 공유, 주별 팀 전환제, 연습 운영 도우미, 경기 심판, 경기 운영, 기구 관리, 네트 설치 및 정리, 체육관 관리 등의 개별 및 집단 과제를 부여하였다.

2. 자료 수집

가. 심층 면담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인별로 면담 내용의 비중에 따라 회수와 시간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개인당 2~3회, 1회 시간은 30분 내외로 실시하였다.

면담은 개강 즈음에 1차 실시를 하였고, 이후에는 강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학생별로 수시로 실시하였다.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개방적 답변이 담길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 질문지는 선행한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거나, 학생 과제와 소감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작성, 사용하였다. 심층 면담은 문서 자료에 담긴 연구와 관련된 중요 단서에 대해 깊이 있는 추가 정보의 발굴이 필요할 때 자료를 보강하기 위한 작업 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심층 면담에는 1) 교양체육 수강의 계기, 2) 교양체육에 관한 인식, 3) 초, 중, 고에서의 스포츠 참여 정도, 4) 교양체육 참여가 삶에 미치는 영향, 5) 교양체육과 인성 발달의 관계, 6) 교양체육과 역량 발달의 관계, 7) 수업 참여 중 인성과 역량의 관계에 관한 인식 등을 담았다.

나. 중간 과제: 기능 학습, 성장, 경기 분석 과제

본 연구는 배구 실력의 성장에 관한 기록과 배구 기본 및 경기 기능에 관한 분석을 통한 배구 안목의 형성 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과제를 부여하였다. 과제는 수업이 전개되면서 자신의 배구 기능, 지식, 태도가 어떻게 변화, 성장하는지를 담아낼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도록 안내하였고, 학생들은 수강 과정에서 자신이 인지적, 기능적, 정의적 측면에서 겪는 변화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하였다. 자신의 배구 실력을 객관화하면서 전문선수들의 배구 경기에 대한 평가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자신의 위치를 점검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본 과제를 통해 학생들은 배구 기본 기능의 중요성, 경기 전개의 원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고, 연습 참여의 의미와 참여 과정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기회를 가졌다.

다. 기말 과제: 자기 평가 및 소감문

본 연구는 학기 말 과제로서 자기 평가 및 수업 소감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자기 평가와 소감문은 수업 참여의 초반부터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습한 기능과 지식에 더해 수업 참여에 대한 소감, 에피소드, 슬럼프, 어려움의 극복 과정 등 수업 전반에 대한 경험과 소감이 담기도록 안내하였다. 자료 수합과 분석을 통해 연구자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사건의 체험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차원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였다. 특히, 학기 말로 접어들면서 배구 게임 활동, 팀 역할, 수업 전체의 맥락에서 자신의 성장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개인을 넘어 대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변화 모습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자료는 스포츠에 대한 인식, 배구 종목에 대한 편견의 탈피, 다른 종목 및 교양체육과의 비교, 기능 향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극복 과정, 배구에 관한 안목과 태도의 성숙, 팀 및 단체 활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배구를 통한 자기 성장이 일상과

맞는 긍정적 관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3. 자료 분석

심층 면담, 경기 분석 과제, 자기 평가 및 소감문 등은 인성 기반 역량 함양이라는 주제에 맞춰 분석, 분류되었고, 이를 단계별 개념화 작업을 거쳐 정리하였다(Charmaz, 2014). 3차례의 코딩을 거쳐 최종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1차 초기 코딩은 수집 자료 전체를 대상으로 각각 구별되는 영역을 설정하고 분류하였다. 2차 집중 코딩은 구분된 해당 영역의 자료를 주제별로 나누고 범주화를 통해 각각의 개념으로 정리하였다. 3차 이론 코딩은 2차 코딩의 개념 간 관계를 설정하고 각각을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을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본문에 제시하였다. 가령, 인성 형성 단계에서는 1차 코딩에서 과제와 소감문 그리고 심층 면담에 등장하는, 공에 대한 두려움, 공을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 두려움 떨쳐 내기, 팀 내에서의 책임감 고양, 팀을 위한 역할의 고민 부분은 2차에서 도전 의지의 형성, 개인과 팀 수준에서의 역할 수행으로, 이어서 3차 과정에서 용기와 책임감의 형성이라는 최종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한편, 역량 형성 단계에서는 1차 코딩에서 연습과 반복의 노력, 성취감과 자신감, 학업과 미래의 배움, 신체적 성장, 체력의 중요성, 삶의 원동력 등은 2차에서 자기 의지, 자신감, 참여 동기, 끈기와 추진력으로, 3차에서 자기효능감, 동기, 몰입력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었다.

4. 연구의 신뢰성

확보한 자료의 분석 과정의 엄밀성, 정확성을 위해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자가 추출한 개념, 특히 1, 2, 3차 코딩을 통해 도출된 개념과 해당 내용이 연구 참여자가 제공한 진의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자 참여자들이 검토할 수 있는 확인 과정을 거쳤다. 둘째, 확보한 자료(① 심층 면담, ② 중간 과제, ③ 기말 과제)에 대한 개념적 접근과 분류가 상호 일치하는지 삼각 검증법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Denzin, 2017). 셋째, 연구자 스스로 설계한 수업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기에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스포츠교육학 박사 1인, 교양체육 강사 1인으로부터 연구의 설계와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연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특히, 연구자가 분석한 대상의 자료가 수업 과제인 만큼 연구자를 의식하여 학생들이 과제 작성 과정에서 연구자를 의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social desirability bias)는 판단으로, 수업 초반 과제 작성 안내에서 수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에 어떠한 내용도 기탄없이 담을 것을 요청했고, 연구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며 교양체육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개선 의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서술도 부담을 갖지 말고 할 것을 안내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인성의 함양

가. 개인적 차원: 용기와 책임감의 형성

배구는 인기 스포츠이기는 하지만 경기장 확보, 네트 설치와 정리, 공을 잡고 소유하면서 하지 못하며 공을 놓치면 바로 랠리가 종료되는 점 등으로 진입 장벽이 높고 입문이 어렵다. 관심과 흥미가 있더라도 장소, 시설, 팀이 구성되지 않으면 참여가 어렵고, 일정 수준의 기능이 형성된 사람들의 동시적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집단적인 참여가 쉽지 않다. 입문의 시기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 전 학창 시절에는 기능 자체의 어려움으로 언더핸드 및 오버핸드 토스 정도만 수행평가를 하는 정도이지 실제 경기 경험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학생들은 배구에 대한 관심으로 호기롭게 수강 신청을 하였지만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배구공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학생 입장에서 배구공을 한 번 터치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를 내야 하는 일이었다.

이번 학기, 배구 수업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중략)...공을 제대로 받아낼 수 있을까,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어가거나 팔목이 아프기도 했지만, 점차 공과 손의 감각을 익혀 가면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여갔습니다. (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2)

사실 수업 초반까지는 힘들었다. 처음에는 빠르고 낮게 날아오는 공을 받는 게 정말 무서웠고 어려웠다. 그래서 초중반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 갈 때쯤, 실력이 조금씩 늘면서 흥미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중략)... 좀 더 용기 내서 공을 최대한 피하지 않거나 움찔하지 않고 정신을 차려 받으려고 했다. 그때부터 실력이 느는 게 보였고, 경기 중에도 팀에게 피해를 덜 끼치게 되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4)

이처럼 학생들은 두 가지 차원에서 두려움을 갖고 활동에 참여하였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공이 무섭고 정확한 패스를 연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팀 차원에서는 자신의 실수로 연결

이 끊어져 랠리가 종료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것이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용기”라는 덕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용기를 발휘하는 게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는 점도 이해하기 시작했다.

교수님이 공을 때려주실 때 워낙 순식간에 수비 동작이 이루어지니 공을 받는 게 아니라 막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센 공을 계속 받다 보니 공이 점점 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센 공을 받아서 연결이 되면 ‘배구가 이 맛에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기를 내니까 자꾸 도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연습 때 빨리 제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중략)... 2단 토스 때 연결이 계속되니까 연습 때 더욱 집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A. 심층 면담)

학생들은 무섭게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발휘하여 받아내는 일이 팀원으로서 역할의 일부를 책임지는 일이라는 점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업 초반 개인적 차원에서 배구 기능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던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조금씩 팀 내에서의 책임감 있는 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어려운 과제에 대한 도전과 용기가 자신의 인성적 차원에서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은 보여준다.

운동에 참여하는 게 많은 책임감을 갖게 하고, 제 역할을 완수했을 때 개인 운동을 할 때보다 훨씬 큰 보람을 느껴요. 공에 겁먹지 않고 공을 코트에 올려놓으면 그게 연결이 되니까 제가 뭔가 역할을 하고 있긴 하구나 하게 돼요. (E. 심층 면담)

웬만하면 책임감 있게 내 공이라 생각하고 달리며, ‘쿨’을 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 배구를 하면서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법을 배웠다. (002 배구 수업과제, 학생 14)

나. 대인적 차원: 존중·신뢰·배려심의 성장

배구 수업의 초반에는 공에 대한 두려움과 일단 공을 살려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연습에 집중하고 그것으로 팀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책임감을 갖기 시작했다면, 기능이 익숙해지기 시작하자 배구 경기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고 함께 수업하는 동료에 대한 존중과 신뢰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수업 처음부터 정말 잘하는 분들도 있고, 몇 주가 지났지만 언더핸드 패스도 계속 어려워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배구는 누구한테 공이 될지 모르고, 공을 패스

하는 사람은 어쨌든 공을 살려야 하니까 진짜 윈 팀이 안 되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스포츠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못하면 팀 자체가 어려워 지니까 그 부담이 커요. 개인 플레이도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가는 게 배구라는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서로 지켜주고 커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C. 심층 면담)

일단 연습할 때나, 경기할 때나 같은 팀이 되면 서로 아끼고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게 배구 같아요. 작은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못하더라도 작은 세레모니를 통해서 격려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F. 심층 면담)

마지막 수업 시간에 깨달음을 얻고 팀에서 좋은 활약을 거둘 수 있어 보람찼다. 어떻게든 달려가서 공을 띄워놓으면 팀원들이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5)

교양체육 배구 수업을 통해 스포츠 정신에 ‘배려’의 덕목이 깊게 배어 있음을 인식하면서 그로부터 지혜와 교훈을 얻었음을 글에서 서술한 학생들도 있다. 기술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작은 격려와 응원이 팀 내에서 배려의 마음으로 표현될 때 경기력을 더욱 끌어올린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배려의 덕목이 단지 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수행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경기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는 점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학생들은 대학에서의 스포츠 참여가 중고등학교 때와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경험을 갖게 하고, 이것은 대학에서의 스포츠 참여에서만 비로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같은 운동 수행을 하더라도 그 기술이 경기 상황에서 갖는 의미까지 찾도록 해주는 게 대학에서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의미라는 부분을 강조한다.

다. 사회적 차원: 협동과 공동체 정신의 실천

수업이 진행될수록 개인적 차원, 대인적 차원의 인성은 수업 공동체와 팀을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갔고, 플레이 역시 협동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안목과 태도에 의해 농익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무엇보다 낮이 익어가고 함께하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학생들에게 ‘배구 수업 공동체’라는 마음이 형성되었다.

교양체육 수업에서 다른 수강생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건 처음이에요. ...(중략)...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끼리 모이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요. 다들 (배구 강의를 있는) 수요일만 보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도 만나면 반갑지만, 체육관에서 만나면 더 반갑고

그래요. 연습할 때 더 끈끈해지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껴요. (E. 심층 면담)

다수의 학생이 기능 성장의 이면에서 인성과 정서적인 부분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교양체육 수업을 통해 협동적 차원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하는 모멘텀이 생겨났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경기에서 플레이를 대하는 태도와 인성에 관한 성장적 사유와 각성에서 확인했다.

팀원이 공격할 때 커버해주고, 리시브를 놓치면 커버해주고, 블로킹 때문에 자리가 비어도 커버해 주는 모습들. 이러한 과정에서 학기 말에 배구는 협력의 스포츠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배구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이것 때문이었다. ...(중략)... 이번 배구 수업을 통해 운동의 즐거움뿐 아니라 협동과 연습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5)

배구는 기술과 체력, 전략과 팀워크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까지 모두 요구하는 복합적인 스포츠이다. 한 학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배구를 통해 배운 협동심과 책임감,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중요성은 앞으로 내 삶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9)

중간 과제에서 기능적 측면에 관한 분석이 주를 이뤘다면, 기말 과제에서는 교양체육으로 도덕적 성숙, 삶에 대한 태도, 가치, 의지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다. 인성으로서 협동과 공동체 정신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과 가치 함양이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개인 플레이의 기쁨보다 어려운 랠리 상황에서 팀원 전체가 도덕적 헌신과 협동으로 만들어낸 포인트가 더 큰 기쁨과 가치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배구 수업은 나에게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첫째, 신체적인 성장 ...(중략)... 둘째, 정신적인 성장이다. 협동의 중요성, 도전, 용기를 일깨워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배구 수업을 통해 성장한 나의 모습이 앞으로의 대학 생활과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확신한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5)

2. 역량의 발달

가. 기초 수행 역량: 자기관리 역량의 발달

본 연구는 교양체육 배구 수업에서 인성의 함양과 함께 역량의 발달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역량의 발달 역시 인성 함양이 그랬듯이, 초기에는 배구 입문을 통해 배구 관련

기술과 지식에 대한 이해의 심화, 습득력의 향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처럼 기초 기능 수행을 위한 관심과 노력은 자기관리 역량을 발달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초반에는 기본 기술을 정확히 실행하고 규칙, 규정, 전술 지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 자기가 무엇을 알고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의 실패의 경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잡는 계기로 교양체육 시간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초중반까지만 해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겁먹지 않고 많은 연습과 훈련으로 중반을 넘기며 흥미에 불기 시작했다. 고등학생 때 배구 수행평가를 망친 경험이 있어 이를 만회하고도 싶었다. (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8)

혼자 관리하면서 폼을 잡아 나가고 수정을 해야지 안 그러면 늘지를 않아요. 교수님이 배구는 하체가 안 좋으면 절대 잘할 수 없다고 하셔서 웨이트 가서도 하체운동을 많이 했어요. 확실히 다리에 힘이 붙으니까 자세도 낮게 할 수 있고 점프에서도 자신이 생겼어요. (C, 심층 면담)

학생 C의 진술과 같이 많은 학생들이 흥미가 붙은 배구를 잘하기 위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거나, 수요일 배구 수업을 위해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제에서 밝혔다. 학생들은 “매주 수업이 기다려질 만큼 흥미를 느꼈고” (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10), “수업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배구가 기다려졌고”(002 수업 중간 과제, 학생 9), “일주일의 한가운데에 배구가 있어서, 주말이 끝나는 게 싫지 않고 오히려 새 주가 시작되는 게 기다려졌다.”(002 수업 중간 과제, 학생 21). 또한, 대학에 입학하면서 간과했던 운동의 중요성을 교양체육을 통해 새삼 느끼게 되었다.

작년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한 뒤로 만성적인 운동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중략)... 체력 증진에 도움을 받고자 강의를 신청했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노력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꾸준히” 하는 것이었다. 한 학기 동안 몸 관리를 잘해서 감기에 걸리는 등의 이유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각하거나, 시험 등으로 바쁜 일정이 있더라도 수업 시간만큼은 배구를 배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가끔 집중을 잘 못한 순간은 있었지만, 지각이나 결석 없이 “꾸준히 한다.”는 목표는 달성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체력도 학기 초에 비해서는 좋아졌음을 느낀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21)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점점 운동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일상에서 신체활동은 자연스럽게

게 뒷전이 되어버린 상태였다. 그런데 이 배구 수업을 들으면서 매주 2시간씩 제대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다 보니, 단순한 배구 실력 향상을 넘어서 체력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험과 과제로 가득한 한 주 속에서 이 수업은 마치 한줄기 단비 같은 존재였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6)

나. 심리-자기조절 역량: 자기효능감-동기-몰입력의 강화

본 연구는 강의 설계 시 한 차시의 수업 안에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기본 기능을 익히고 공을 한 번이라도 더 만지면서 성공 경험을 갖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개별 기능 기능의 훈련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매주 기본 기능을 학습시킴으로써 모든 연습 상황에서 성공 경험이 쌓여갔다. 학생들은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저는 언더핸드 패스는 많이 자신이 없었는데 매주 같은 훈련을 반복하니까 거기서 느끼게 느껴졌어요. ‘연습하고 노력하면 되는데’라는 걸 대학에 와서 다시 한 번 많이 느꼈고, 다른 일에서도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어요. (B. 심층 면담)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하여 얻은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 작은 시도와 노력들이 모여 팀 전체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는 배구뿐만 아니라 학업이나 미래의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함 배움이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5)

이처럼 학생들은 교양체육을 통해 배구 자체는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부딪히는 일들에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배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 알아나가기 시작했고, 이러한 역량의 향상은 다른 일에 있어서도 자기 동기부여의 역량으로 전화하고 있었다. 교양체육에서의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 얻은 경험은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더 나은 팀원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기”(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도 했고, “기술적으로 성공했을 때 그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해준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9).

배구 수업은 저에게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첫째, 신체적인 성장입니다. 꾸준히 공을 쫓아다니고 점프하고 움직이면서, 평소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을 단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웨이트 트레이닝만 해오던 제게 부족했던 협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였고, 민첩성과 순발력 등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5)

학생들은 기본 기능의 수준이 높아지고 게임에서 랠리가 이루어지자 배구가 매우 예민한 집중력과 정신력 관리를 요구하는 멘탈 스포츠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과제에서 정신력이 왜 중요한지, 정신력의 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집중과 몰입의 정신적인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을 전하였다.

이 수업은 '내가 정말 듣길 잘했다'라고 느낀 몇 안 되는 교양 강의 중 하나인 것 같다. 단순히 학점을 위한 수업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고 몰입할 수 있었던 수업이었고, 이 강의를 통해 다시금 배구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9)

내 한 학기의 원동력은 배구였다. 계속 나를 움직이게 하고, 집중하게 만든 배구의 그 순간 들이 정말 황홀했다. 한여름 땀이 줄줄 흐르던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오래 기억에 남을 거라는 확신이 든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22)

다.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 리더십, 성찰력의 성장

자기관리 역량과 심리적 차원의 자기조절 역량은 목표 설정, 자기효능감, 동기, 집중력이라는 역량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휘되었고, 연습과 게임의 수준이 상승할수록 팀의 수행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자주적으로 설계하고 실천하는 역량으로 연결되었다. 게임 상황에서의 문제를 문제를 의사소통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면밀히 분석하면서 협력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통해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팀 차원에서 경기 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은 학생이 협력 플레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협력의 역량을 일을 해결함에 있어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연습 후 매번 실시한 실전 경기를 통해 서브, 리시브, 토스, 스파이크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플레이를 위해서는 팀원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 (중략) ... 팀원들과 호흡을 맞춰야 했기에 더욱 집중하고 서로의 플레이 스타일을 파악하려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의지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과정은 배구 경기를 넘어 제 이번 학기의 가장 큰 즐거움과 원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2)

수업 중 기억에 가장 남는 활동은 네 명이 짝을 이루어 2대 2로 토스를 주고받으며 랠리를 이어가는 연습이었다. 이 활동은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했지만, 팀워크와 집중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훈련이었다. 상대방과의 거리, 공의 높이, 토스 타이밍 등을 고려하면서 순간순간 빠른 판단을 내려야 했고, 자연스럽게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도 형성되었다. 이 연습을 통해 단순히 배구 기술만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을 처리하겠다고 قول을 하는 상황을

통해 배구에서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22)

앞서 인성으로서 협동심이 학생들의 도덕적 성숙과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면, 주어진 과제와 문제 상황을 모두의 과제로 수용하고 유능하게 해결하려는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연습과 게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들도 눈에 띄었다. 남들보다 큰소리로 파이팅을 외치고, 동료를 큰 소리로 응원하고 격려하며, 게임 상황에서는 ‘콜’ 플레이를 강조하고, 랠리 후에는 잠깐씩 피드백을 주고받기를 주도하며 팀의 경기력을 조율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배구 수업에 매우 적극적이었던 한 학생은 게임 상황에서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부분을 다음과 회고하였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가는 내 모습을 보는 즐거움,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합을 맞추어 팀으로 경기를 서로 이끌어 가는 것,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잡념은 날려버리고 열심히 뛰는 그 시간이 주는 해방감 등 이 수업은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남겨준 수업이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3)

게임을 많이 해보니까 뒤에서 수비를 하면서 우리 팀의 움직임을 보는 데에 흥미가 생겼어요. 랠리가 끝나면 뒤에서 보고 있던 걸 팀원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그게 수정이 되면서 경기력이 올라가니까 다른 학우분들이 게임 상황에서 많이 신뢰했던 거 같아요. (D. 심층 면담)

배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키운 역량 중 주목할 부분은 바로 배구 수업을 통해 얻은 교훈과 가치를 메타인지적인 방식으로 성찰하고 수업에서 그리고 삶에 적용하려 노력을 한 부분이다. 즉, 수업 초반 기초 기능 학습과 진도를 따라가느라 자신의 배구 수행과 실천에 대한 즉자적인 평가와 분석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수업 후반으로 갈수록 자기와 팀에 대한 객관화가 가능해지면서 본인의 기능 수행, 수업 태도, 협력 플레이, 동료 분석, 수업 문화 등에서 입체적인 평가와 분석이 가능한 단계에 도달하였다. 학생들은 교양체육에서의 스포츠 참여, 전공 학업, 대인 관계 등에서 배구를 통해 배운 성찰의 역량이 자연스럽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표현하였다. “배구 수업을 통해 ‘함께 사는 삶’의 자세를 몸으로 체화해보는 시간을 가졌고”(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3), “팀내 역할에 대한 경험이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사람들과 협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될 것”(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14)을 깨달았다.

고등학교 수행평가 때 제게 고난으로 다가왔던 배구를 이번 수업을 통해 다시 배우게 된 것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 자신 없던 스포츠에 도전하고 결국 그것을 즐기게 되는 과정을 통해 제 자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 준 기회였습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8)

교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수비 연습을 반복해서 시켜주신 적이 있었다. 그날을 계기로 내 자세와 마음가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수비 핵심은 결국 '버티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뒤로는 속으로 "버티자, 끝까지 집중하자"라고 되 녀며 공을 받아냈다. 이 경험을 통해 단순 운동 기술을 넘어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략)... 두려움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직시하는 끝까지 버티내는 태도가 필요했다. (002 수업 중간 과제, 학생 2)

흐릿한 관계가 뚜렷한 것으로 변모하는 과정에는 항상 나 자신이라는 장애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자 또 다른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배구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략)... 비록 제 배구 실력이 뛰어나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3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3)

3. 인성과 역량의 연계

가. 책임과 자기관리·목표관리 역량

교양체육 참가 학생들의 배구 수업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은 인성과 역량이 분리된 활동이 아니라 깊은 관계 속에서 상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인성은 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적인 형태로 표현되고, 역량은 인성에 기반했을 때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 우선, 학생들의 인성 요소로서의 책임감은 자기조절과 목표관리 역량과 연결되는 양상을 띠었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책임감은 물론 팀에 대한 책무성이 함께 나타나면서 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석, 평가하면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보완 전략을 모색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처음에는 서로의 움직임을 읽지 못해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저의 부족한 실력 때문에 팀원들에게 미안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의 학우들과 조교님들께서 언제나 웃으며 격려해 주셔서 위축되지 않고 다음에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

경기 중 스파이크 과정에서 어깨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몸의 회전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추후에 어깨 부상 방지를 위해 이 부분을 최대한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한 스파이크 연습과 어프로치 타이밍 조절을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15)

자기관리와 목표설정이 선순환을 이루면서 배구 실력을 쌓아가는 노력이 경주되었음을 학생들은 서술한다. 매주 자신의 실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나아가 배구동호회에서의 활동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전략)... 앞으로 있을 경기를 책임감을 갖고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기본기 연습에도 집중하게 된다. 한 가지 연습만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습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몸이 식을 일도, 지루해질 일도 없었다. 점진적으로 기술 연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요도를 잘 알 수 있었고, 내가 매주 실수하는 연습을 알 수 있어 나의 약점과 고쳐야 할 점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21)

배구는 공이 넘어오는 순간부터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을 중복됨 없이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차례의 후행자는 선행자를 신뢰하고, 선행자는 후행자의 신뢰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일련의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스포츠에서의 팀적 역할에 대한 경험은 앞으로 목표 달성을 ...(중략)... 하는 상황에서 큰 자산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2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특히 경기 중 서브 미스가 자주 발생했고, 서브를 안정적으로 넘기는 것 자체가 여전히 어렵다. ...(중략)... 또, 서브를 세터나 팀원이 받기 좋게 넘기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수업 외 시간에도 배구동호회에 참여하며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연습해 나갈 예정이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4)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자기 관리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한 결과는 또한 자기효능감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기관리의 책임감과 팀 안에서 책무성인 한 학기 동안 꾸준하고 성실한 연습의 참여로 그리고 일상의 관리로 확대되면서 수업에서도, 일상에서도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는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처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스포츠에 도전하며 얻은 성취감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고”(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10),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하고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나. 공감·배려와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교양체육 배구 수업에서 학생들은 공감과 배려의 인성을 함양하였고, 인성에 기반하여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보여주었다. 동료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해했으며 공감력을 발휘하면서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수업 분위기를 만들어나갔다. 이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황에서 팀 내에서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다. 의사소통 역량의 발달은 경기 상황에서 협력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하도록 이끌었다. 인정, 격려, 배려 속에 팀원으로서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표현은 팀을 강하게 만들고 팀원들 간 우의를 돈독하게 하였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색함이 없게 만들었다.

기술 연습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을 바로 연습 경기에 적용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이 매우 재미있었다. 실수를 하더라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에서 배구 연습 경기를 할 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배구가 지닌 팀 스포츠로서의 매력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001 수업 중간 과제, 학생 22)

무엇보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배구는 ‘배려’가 담긴 스포츠라는 점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내가 공을 잘 올리고 받아내는 것은 결국 팀원에게 최선을 다해 좋은 공을 넘겨주는 일이고, 그 과정은 나 혼자만의 기술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움직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 역할을 해낸다는 것이 곧 팀과 팀원을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 배구는 더 특별하게 다가왔고 그만큼 더 큰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배려와 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3)

기본 기능과 경기 기술에 대한 인지적 차원의 분석은 정서적 차원에서 단일한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게 하였다. 경기 기능을 수행하는 바탕에 정의적인 차원의 배려와 공감의 마음이 깃들어 있고, 이것이 기술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이며, 소통의 전제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면서 마침내 팀원들과의 호흡의 중요성, 협력의 가치를 발굴하고 체화하도록 이끌었다. 결국 공동체 협력 역량의 출발은 공감과 배려였다.

경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배구가 개인의 능력만큼이나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깨달았다. 공을 올리고 받아내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 동작이 아니라, 내 역할을 다해 팀원에게 공을 정확히 넘겨주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움직임을 이해하

고 배려하는 마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경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꼈다. ... (중략)... 이 과정에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과 움직임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좋은 경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팀원들과 호흡을 맞추며 함께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경험이 인상 깊었고, 그 속에서 협력의 가치를 실감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4).

연습과 게임을 통해 공감과 배려의 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면서 학생들은 더욱 정서적 유대감이 고양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다. 배려 속에서 낯설은 친숙함으로, 어색함은 편안함으로,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진화하였다.

처음에는 학생들끼리 서로 낯설고 어색했지만, 공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실수를 격려하고 성공을 기뻐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팀워크와 유대감이 형성되었다. 수업 후반에는 완벽하게 셋업을 성공하고, 또 완벽하게 블로킹에 성공하며 짜릿한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경기가 거듭될수록 누가 서브를 넣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공의 궤적이 어떤 경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며, 어느새 우리는 서로를 아는 팀이 되어 있었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7)

다. 포용적 공동체성과 리더십 및 집단적 성찰 역량

앞선 공감과 배려 그리고 협력적인 협력 역량의 결합은 한층 고양된 차원에서 인성적으로는 포용적 공동체성을, 역량적으로는 리더십과 집단적 성찰 역량으로 확장되었다. 학생들은 서로가 격려하는 포용적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책임을 분담하고 팀 내 역할을 존중받으며 강력한 소속감을 형성하였다. 책임감과 목표설정 역량의 함양, 공감과 배려를 통한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습득하면서 궁극적으로 팀이라는 공동체 내부에서 따뜻한 상호 인정, 공존, 연대의 감정이 흐르며 성숙한 주체들의 결합인 사랑의 공동체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포용적인 공동체성의 확립은 자연스럽게 바른 리더십이 형성되는 토대가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 한 외국인 유학생은 교양체육 수업이 지금까지 쉽게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한 배려 속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며 팀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고민하는 기회를 주었음을 밝히고 있다. 수강생 간 열정적인 모습과 따뜻한 감정의 교류가 생기고 이것이 많은 부분 대학 생활에 큰 경험이었다는 점을 전하고 있다.

모든 학생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했고, 제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잘 적응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은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더 나은 학생이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갖게 했고, ...(중략)... 팀워크 형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001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

배구 수업 초반 우리는 서로 어색해 모든 수강생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거나 멀뚱멀뚱 배구 하는 것을 보고 서 있었다. ...(중략)...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같은 배구 수강생들의 정이었다. 이번 학기 나는 졸업 학기였기에 시험과 여러 일정을 병행하면서 배구 수업이 조금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중략)... 수업에 열정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수강생들을 볼 때마다 더 열심히 경기에 참여하게 된 것 같았다.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1)

수업이 거듭되면서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게임에 열정을 쏟아부은 장면은 이상적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정동의 흐름이 구성원들을 휘감아 도는지를 보여주는 예표였다. 희생, 헌신, 환호, 공감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몰입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끌고 밀어주는 지지자였다.

특히 마지막 수업 날이 기억에 남는다. ...(중략)... 다들 몸을 사리지 않고 볼을 살리려 뛰어들고, 우리 팀이 좋은 플레이를 해주면 다 같이 포효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그 순간의 감정은 일주일도 지난 지금도 계속 떠오른다. 삶을 살아가며 다른 모든 걸 잊고 하나에 몰입해 투쟁하는 경험은 그리 자주 찾아오는 경험은 아닌 것 같다. 또 그 속에서 누군가의 응원과 칭찬을 받고, 나 또한 마음 편히 그들을 응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일이 또 얼마나 있을까? 또한 빠르게 성취를 이루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 (002 수업 기말 과제, 학생 3)

협력의 가치를 초월한 사랑과 포용의 가치 공동체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 팀의 수행에 대한 집단적 평가와 성찰을 매우 자연스럽게 이끌었다. 함께한다는 것, 같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각성하는 것, 이 과정을 통과함으로써 더 큰 공동체 안에서 더 큰 주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일어났다. 포용적 공동체성의 강화는 집단적 성찰을 통해 팀의 경기 수행을 질적으로 고양하고, 수강생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역할 조정, 목표 재설계와 집단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제가 노력을 하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배구를 배우고 연습하면서, 저희는 서로를 평가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잘한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또 힘들거나 짜증날 때면 힘내자고 농담도 치면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중략)... 저는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이 무언가를 꾸준하게 노력하

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구 수업을 수강하면서, 이것이 “우정”이라고 느꼈습니다. (002 수업 중간 과제, 학생 13)

IV. 논의

1. 교양체육에서 인성 및 역량 발달의 교육적 의미

이 절에서는 교양체육이 인성과 역량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적 의미를 다룬다. 첫째, 교양체육은 자유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인성의 함양에 적절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교양체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었지만, 기능을 학습하는 일이 태도라는 정의적 측면과 결코 분리돼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공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 내기 위해 용기를 발휘해야 했고, 자신의 플레이가 팀 차원에서 갖는 의미를 되짚으며 책임감의 무게를 느꼈다. 탁월한 경기 기능의 수행을 위해 팀 안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성찰적 태도를 보이면서 동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표현하였고, 나아가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알아갔다. 배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입문한 가운데 시간이 흐를수록 스포츠맨십의 발달이 학습 과정의 기저에 놓이면서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그들이 보이는 책임감, 성실성, 자기조절, 신뢰, 존중, 배려, 협동심은 자유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보편적 인성교육, 자기 성찰적인 인간의 양성이라는 이상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백승수, 2020; 김은희, 류태호, 2016; Ward, 2016). 인지적인 차원에서 인성의 덕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경험 차원에서 인성의 중요성을 깨닫고 체화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다(박정준, 2011; 최의창, 2010; Dewey, 1938; Kolb, 1984). 이는 교양체육이 이론 중심의 도덕교육의 장이 아니라 체험 중심, 실천 중심의 도덕교육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배구 수업에서의 반복된 훈련, 역할의 수행, 집단 활동, 개인 및 집단적 평가 활동 등은 교양체육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도덕적 태도의 중요성을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이면서, 윤리적으로 성숙한 태도가 습관화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김성현, 2004; 양은석, 2008; 오승현, 2022).²⁾ 이처럼 교양체육이 자유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가치

2) 관련하여 본 연구는 교양체육의 효과를 ‘인성·역량의 상호연동 메커니즘’으로 개념화하고, 책임·공감·공동체성과 같은 인성 요소가 자기관리·협력적 문제해결·리더십 등 핵심역량의 발현과 연결되는 구체 경로를 경험적으로 제시한 점이 선행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이는 평생스포츠 참여 동기와 삶의 성찰의 단계적 변화를 중점적

를 체화하도록 하고, 살아 있는 도덕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는 지성인을 배출해야 하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예증한다.

둘째, 교양체육은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한다. 교양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매 순간 도전 과제와 난관에 봉착하였다. 마음같이 늘지 않는 실력, 초보자의 거칠고 투박한 몸짓, 들쭉날쭉한 컨디션과 실력, 연결되지 못하고 쉽게 끊기는 패스, 단체 스포츠에 참가하는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팀플레이 등. 교양체육에서 맞닥트리는 모든 과제와 순간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으로서 남다른 도전정신과 각오를 요구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문제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학습을 지속하고 집중력을 발휘하였다(송기현, 김승용, 2018; 이강우 외 2014). 자기 조절과 관리를 위한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애쓰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관리에 기반한 목표 설정과 실천 역량을 체득해 나갔다(안병옥, 조은영, 2015; 조건상, 2015).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반쪽짜리 성취에 머문다는 점을 이해하고 집단적으로 해야 하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 노력하였다.

교양체육 참여 학생들은 점차 대인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 공동체 내에서의 협동, 리더십, 성찰력을 키워나갔다. 이 과정에서 내가 참여하는 팀이 하나의 강력한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량 또한 증대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역량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냈다. 나아가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적 문제를 배구 수업에서 깨달은 교훈과 연결시키면서 문제해결력을 키워나가는 장면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스포츠 종목에서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수준에 그친 게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 이를 곱씹고 역량을 키워나가는 장면을 보여주었다(Ryan & Ryan, 2013). 이는 스포츠 참여에서 함양한 역량이 단지 수업 내에서의 실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영역으로 옮겨지면서 실질적인 삶의 역량으로 전환되는 장면이다. 이 부분은 교양체육이 스포츠에서 기능적인 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량이 삶의 구체적인 역량으로 연결되어 생활을 개선하고 삶을 진취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학교육 내에서 존재의 단기적 성장을 견인하는 것을 넘어 지성인으로서의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히고 깊이 있게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으로 다루고 통합적 교수학습의 정당화를 시도한 오승현(2020, 2022)의 연구와 차별화된다. 특히, 본 연구는 관찰된 인성 덕목-역량을 지도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수적 조건을 함께 제안하여 실천 가능한 설계 원리를 제공한 점, 교양체육에서 전인교육과 역량교육이라는 이원론을 넘어서는 구체적·통합적 차원으로 정리, 분석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2. 교양체육에서 인성과 역량의 관계

이 절에서는 교양체육에서 함양한 인성과 역량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점과 교양체육이 통합적 관점에서 내용과 방법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룬다. 첫째, 교양체육에서 함양한 인성과 역량은 유기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 본 연구는 교양체육 참가자들이 인성과 역량을 함께 발달시키는 점을 보여준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학습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인성을 발휘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이를 역량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 전개되었다(최미영, 정명희, 2016; Li et al., 2025; Pozo et al., 2018; Richards et al., 2019). 개인적 수준에서 요구됐던 인성의 덕목인 용기와 책임감은 구체적인 과제 수행 상황에서 목표 설정, 자기 관리라는 역량의 기반이 되었다. 당면한 목표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들은 성실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성과를 거두었다.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동료에 대한 인정과 공감의 마음을 갖도록 이끌면서 팀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강력한 통합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강한 결속력이 형성된 공동체는 학생들에게서 포용적인 마음을 발휘하도록 하면서 학습 공동체를 인정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며 그 안에서 도덕적 태도가 함양되도록 한다(Kohlberg, 1984). 목표지향적인 공동체의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더 높은 성취를 향해 집단적 성찰력이라는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였다.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이는 인성과 역량이 개인적 차원이든, 집단적 차원이든 결코 배타적이지 않으며 도덕적 행위 능력이 협력적 역량과 상호규정적 관계에 있음을 드러낸다(Miranda-Rodríguez et al., 2023).

이 점에서 대학 교육과정에서 교양체육은 그 지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교양체육의 교육적 효과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필수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 대학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에 자유교육과 역량교육의 이념 조화롭게 융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학교육 위기의 시대에 교육의 이상과 사회적 현실을 고려하여 지성인을 양성하여 사회적 불신과 실망을 견어내야 한다. 교양체육은 체험 중심의 인성 기반 역량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유교양교육에서 추구하는 인문성을 학생들이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인성 기반 역량교육의 진입로로 닦아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교양체육에서 자유교양교육과 역량교육이 추구하는 가치를 방법론적으로 성찰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론을 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현재 아쉽게도 교양체육이 어떠한 철학적 기반에 서 있는지 분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현장에서도 교양체육이 지닌 교육적 가능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론을 발굴하고 공유하는 일은 부재하다. 교양체육이 위기를

겪는 작금에 교양체육의 철학적, 이론적 근거가 당연히 탐구되어야 하나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유정애, 권민정, 2013). 자유교양교육 철학 안에서 교양체육의 근거를 규명하거나, 교육철학적 차원에서 교양교육이 갖는 고유한 성격과 가치를 밝히는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양체육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성찰 또한 미미한 상황이다(장민우, 정현우, 2025). 교양체육의 교육적 유용성을 밝히는 연구는 교육 효과에 대한 분석은 있으나 이를 교양체육의 철학적 방향이나, 교수·학습 방법론의 차원으로 끌고 가 구성하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물론 교양체육이 전개되는 현장의 사정과 여건에 따라 교양체육의 내용과 방법은 다양하게 변형될 수 있다. 하지만 교양체육의 교육적 가치와 역할에 관한 최소한의 이해와 합의는 필요한 상황이며, 아직 그 철학적, 이론적 담금질을 통해 버린 결과물의 축적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경험 연구들을 단초 삼아 통합적 방법론에 입각한 교양체육의 교수·학습 방법론을 구상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교양체육은 운동 기능의 단순 습득과 향상이란 목표를 상회하는 개인적 성찰과 공동체적 실천을 함께 엮는 융합적인 지성인의 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나가 될 수 있다(임수진, 김수연, 2018). 본 연구는 인성과 역량이 조화롭게 발달하는 모습의 일단을 보여준다. “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의 역량은 인성에 기반했을 때 그 방향성이 가치 있게 빛을 발한다는 것이 확인된다. 나아가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삶에 의미화하는 주체인 학생은 곧 사회에 나갈 예비 직업인이기도 하다. 이는 자유교양교육의 이념이 현실적으로 약화된 대학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직업적 능력으로서 키운 역량이 과연 무엇을 위해 쌓은 역량인지 성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끄는 교양교육으로서 교양체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이유이다.

한편, 연구 결과는 인성 기반 역량교육으로서 교양체육의 교수·학습 방법론을 구체적인 수준에서 모색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제시한다. 그것은 교양체육 지도자가 수업 설계를 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종목이 갖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수업의 전개에서 학생들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구체적인 인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훈련 내용의 조직과 전개에서 실제적으로 함양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예상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연습 내용 선정과 구성, 차시별 연습 내용의 차별화, 훈련 과정에서 발휘해야 할 역량의 요소, 매 차시 어떠한 방향에서 피드백을 제시할지가 여기서 관건이다. 수업 초반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꼼꼼하게 기록하고 장단점을 고려한 개인 맞춤형 피드백을 줄 때 수업의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연구 결과에서 학생 발달의 경로가 개인에서 대인적, 집단적 수준으로 나아가듯이, 수업 구성과 피드백 역시 개인 차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차원으로 학생들의 안목과

태도가 확장될 수 있도록 각 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교양체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수업 과정에서 함양한 인성과 역량이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며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양체육은 인성의 발달을 촉진한다. 교양체육에서 인성은 개인적, 대인적 차원을 초과하여 공동체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둘째, 교양체육은 역량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교양체육 참가자들은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목표와 활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내부에서 협력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워나갔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교양체육 수업에서 인성과 역량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올바른 방향성의 행위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였다. 용기와 책임감은 자기 관리로, 공감과 배려는 협력적 공동체의 구성을 통한 집단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결과로, 포용적인 공동체의 구성은 집단 내부에서 신뢰할 만한 리더십과 집단적 성찰 역량을 가능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는 인성교육과 역량교육의 통합이 실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경험 연구이기에 인성과 역량을 개념적 차원에서 짚는 이론적 엄밀성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점과 단체 종목 중심의 연구이기에 개인 종목이나 전통 스포츠와 성격이 다른 스포츠가 교양체육에 접목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제언을 덧붙인다. 교양체육의 철학적, 이론적 기반을 탄탄히 구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됐듯이, 인성과 역량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엄밀하게 엮고 분석할 관점의 탐구가 필요하다. 교양체육에서 인성과 역량의 관계를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탄탄하게 전개되기 위해서 교양체육의 이념과 철학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수 있는 작업이 따라야 하는 이유이다.

※ 논문 투고일: 2025. 09. 24. ※ 논문 수정일: 2025. 11. 24. ※ 게재 확정일: 2025. 12. 10.

〈참고문헌〉

- 김민정(2019). '역량담론'의 헤게모니와 대학교양교육의 방향. **문화와융합**, 41(5), 321-348.
- 김성우, 최종덕(2009). 대학 교양교육의 위기와 인문학의 미래. **시대와 철학**, 20(1), 11-42.
- 김성현. (2004). 분별력 함양을 위한 교양체육 수업 사례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1(2), 105-120.
- 김은영, 이재성(2017). 여자대학 인문 사회 예술계열 대학생의 취업 의식 및 교양교육 연구: C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6), 565-596.
- 김은희, 류태호(2016). 대학교 교양체육수업의 문화와 교육적 가능성 탐색: K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55(5), 263-278.
- 김재우(2018). 교양체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분석 전략.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2(7), 191-201.
- 박정준(2011).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가?: 스포츠 인성교육의 이론적, 경험적 근거와 과제. **교육과정연구**, 29(3), 173-202.
- 백승수(2020). 핵심역량기반 교양교육의 당면 과제와 개선 방향. **교양교육연구**, 14(3), 11-23.
- 손승남, 김인영, 송하석, 이재성, 최예정(2021).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 핵심역량. **교양교육연구**, 15(1), 11-30.
- 손종현(2022). 역량기반 교양교육에 대한 교육적 타당성 비판. **교양교육연구**, 16(2), 11-30.
- 송기현, 김승용(2018). 대학 교양 체육수업에서 교수 피드백 유형과 자기효능감 및 운동지속의 구조적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6(5), 469-476.
- 신민혜, 조남기(2016).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따른 교양체육에 대한 대학의 정책변화와 대응. **한국체육정책학회지**, 14(3), 113-124.
- 신성진, 원영인(2022). 교양체육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체육과학회지**, 31(1), 21-33.
- 안병욱, 조은영(2015). 대학 교양체육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 재미요인, 몰입경험, 대학생활만족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0(3), 97-107.
- 양영근, 정원희(2014). NCS 직업기초능력에 기반한 교양교과목 개편방향 연구. **교양교육연구**, 8(4), 45-68.
- 양은석(2008). 신체활동을 통한 인성발달의 임상사례.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2), 983-990.
- 오승현(2020).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양체육 수업 참여 경험의 의미.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2), 113-137.
- 오승현(2022). 교양체육 수업 참여 경험의 질적 분석: 평생스포츠 참여 동기 형성과 인성 발달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61(6), 59-72.
- 유정애, 권민정(2013). 교양체육의 반추: 교양교육으로서의 교양체육 재구조화: 교양교육으로서의 교양체육 재구조화. **한국체육과학회지**, 22(5), 1007-1023.
- 윤대현, 이주욱(2014). 대학 교양체육의 성과와 지향점 탐색. **디지털융복합연구**, 12(2), 503-511.
- 윤유진, 이연주(2018). 대학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국내·외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비교연구. **교양교육연구**, 12(2), 259-286.
- 이강우, 이한경, 이용주, 이향범(2014). 대학생의 교양체육수업 참여동기가 신체적 자기효능감 및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4), 127-137.
- 이기대, 권준우, 박정준(2023). 스포츠 인성 개념의 시론적 탐색: 유형과 수준의 재고.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0(3), 1-25.

- 이숙정, 이수정. (2012). 대학 교양교육의 방향과 과제. *교양교육연구*, 6(2), 11-42.
- 임수진, 김수연(2018). 대학교양 교육과정 개발의 융합적 접근-소매틱스 (Somatics) 에 기반한 체육교양강좌 사례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7(3), 117-133.
- 장민우, 정현우(2025). 대학 교양체육 발전 방향 및 과제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32(2), 87-108.
- 정태린, 박성현(2022). 스포츠기본법에 기초한 국립대학 교양체육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4), 103-111.
- 조건상(2015). 대학교양체육 참여 학생들의 운동열정과 학습몰입 및 과제지속성의 관계모형 검증. *한국체육학회지*, 54(3), 89-100.
- 조성원, 원영신, 이민규(2013). 대학 교양체육의 역할과 개선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22(3), 489-501.
- 최미영, 정명희(2016). 교양체육수업으로서 해양레저스포츠 캠프 참가자 사례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55(6), 101-110.
- 최의창(2010).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 체육수업에서의 정의적 영역 지도의 어려움과 가능성.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Bartram, D. (2005). The great eight competencies: A criterion-centric approach to valida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185-1203.
- Berkowitz, M. W., & Bier, M. C. (2004). Research-based character education.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1, 72 - 85.
- Charmaz, K. (2014).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2nd ed.)*. Sage.
- Denzin, N. K. (2017).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Routledge.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Kappa Delta Pi.
- Gervais, J. (2016). The operational definition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Journal of Competency-Based Education*, 1(2), 98-106.
- Kohlberg, L. (1984).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The nature and validity of moral stages (Vol. 2)*. Harper & Row.
- Kolb, D. A. (1984).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 Hall.
- Li, W., Yeng Chong, Z., Mao, Y., Zhang, W., Xu, W., et al. (2025). The impacts of a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ntervention on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physical education: A quasi-experiment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27(2), 161-177.
- Miranda-Rodríguez, R. A., Leenen, I., Han, H., Palafox-Palafox, G., & García-Rodríguez, G. (2023). Moral reasoning and moral competence as predictors of cooperative behavior in a social dilemma. *Scientific Reports*, 13, 3724.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DeSeCo): Executive summary. OECD Publishing.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3). *Character strengths before and after September 11*. *Psychological Science*, 14(4), 381 - 384.
- Pozo, P., Grao-Cruces, A., & Pérez-Ordás, R. (2018).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model-based programmes in physical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24(1), 56-75.
- Richards, K. A. R., Ivy, V. N., Wright, P. M., & Jerris, E. (2019). Combining the Skill Themes approach with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to teach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90(3), 35-40.
- Ryan, M. E., & Ryan, M. C. (2013). Theorising a model for teaching and assessing refle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Research & Development*, 32(2), 244-257.
- Sánchez-Miguel, P. A., Álvarez-Sánchez, J. L., Hortigüela-Alcalá, D., Pérez-Pueyo, A., & Tapia-Serrano, M. A. (2025). The effect of the Teaching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Model on personal and social responsibility in physical educ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Quest*, 77(2), 237-266.
- Van der Heijde, C. M., & Van der Heijden, B. I. (2006). A competence-based and multidimensional operation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mployability. *Human Resource Management*, 45(3), 449-476.
- Ward, S. C. (2016). The competency-based approach to higher education: Are the AAC&U and other organizations destroying liberal traditions? *Thought & Action*, 32(1), 25-36.

〈Abstract〉

A qualitative analysis of participation experiences in a liberal-arts volleyball class as character-based competence development education

Oh, Seunghyeon¹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litatively analyze students' experiences of character and competency development through participation in liberal arts physical education classes. The study analyzed reflective assignments submitted by 45 male and femal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a liberal arts physical education volleyball class at A University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ix students. Firs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growth in character, including courage and responsibility at the personal level, respect and consideration at the interpersonal level, and cooperation and community spirit at the social level. Second, the participants enhanced multiple dimensions of competency: self-management competency as a basic functional skill; psychological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such as self-efficacy, motivation, and flow; and problem-solving competencies including collaboration, leadership, and reflective thinking. Third, character and competency were found to be positively interrelated in the context of liberal arts physical education. Responsibility was associated with self-management competency; empathy and consideration were related to collaborative problem-solving competency; and inclusive community-mindedness was linked to leadership and competencies related to collective reflection.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liberal arts physical education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both character and competency, and that these two domains were in a mutually reinforcing relationship.

Keywords : liberal arts physical education, liberal education, character, competency, character-based competence development

1. Teacher, Yongin SeoCheon High School, oaa1@hanmail.net